

전담간호사 교육체계 정상화 촉구대회 참가안내문

- 일시: 2026년 6월 23일(화)부터 7월 14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10:30~12:30(총 120분)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00에 현장 도착 부탁드립니다.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일원

[지하철 이용 시]

- 3호선 경북궁역 4번 출구에서 나와 청와대사랑채 방향으로 도보 5분 이동



공통사항

1. 복장: 흰색 상의 및 어두운 색 하의
2. 안전 관련 주의사항

- 이동 시에는 뛰지 말고 천천히 이동합니다.
-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항상 질서를 지켜서 행동합니다.
- 재난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요원에게 즉시 알립니다.
- 축구대회 종료 후 안내에 따라 순차적으로 퇴장합니다.

※ 안전요원은 행사 당일 분홍색 조끼를 착용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1부: 긴급 기자회견 (10:00~10:30)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참석 대상: 대한간호협회 임원, 각 시도 간호사회 및 산하단체 회장 등

2부: 축구대회 (본행사- 10:30~12:30) 참가자 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시에 현장 도착 부탁드립니다.

- 장소: 사랑채 건너편 횡단보도 남측 20m~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 본 프로그램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한간호협회 긴급 서한문 〉

전국의 58만 대한간호협회 회원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오랜 염원이었던 간호법 제정을 발판 삼아, 진료지원업무의 제도화와 법적 보호라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도외시한 채 간호계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보건복지부의 독단적인 행태가 우리의 간호사의 권익을 다시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업무가 기존에 의사가 수행하던 업무라는 해괴한 논리를 들며, 정작 현장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간호사들의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간호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간호법 하위법령(보건복지부령)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이 법제처 심사 중이기 때문에 법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0일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을 염두하고 공모(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80호, 진료지원업무교육기관 지정평가 예비 도입사업 위탁기관 지정 공모)를 강행했습니다.

이는 간호사에 대한 교육체계 정립에 있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 타 전문 직역과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차별적 행정입니다. 기존 의료인 직역의 전공의 등(의과 전공의, 치과 전공의, 한방 전공의, 전문약사) 수련교육 및 보수교육, 연수교육은 전문가 집단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해당 법정 단체, 병원협회 등에 위탁하여 교육기관 지정평가부터 교육과정 승인심사 업무를 수행토록 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독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교육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공기관을 지정해 관료적으로 통제하려는 의도는 간호 직역을 비전문가 집단으로 폄하하는 차별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대한민국 간호 교육과 실무의 전문성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대표 기관입니다. 우리 협회가 직접 지정·평가를 수행해야만 교육의 질을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부실·형식적 교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충분한 검증 없이 간호사를 현장에 투입하거나, 교육 받지 않은 업무를 강요받는 부당한 관행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과 독단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간호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결국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강력한 연대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법 절차를 무시한 보건복지부의 졸속 행정을 저지하고, 간호계가 주체가 되는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를 반드시 쟁취해 내야 합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전국의 회원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간호사의 권익과 전문성을 사수할 것이며, 국민에게 안전한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싸워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이 길에 힘을 모아 주십시오.

2026년 6월 18일

대한간호협회 회장 신경림 배상